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과 부모와 교사의 중재 영향

Patterns of Childhood's Smart Media Literacy and Effect of Parents' and Teachers' Mediation

장석준*, 박창희**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송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Seckjun Jang(krjun7@cau.ac.kr)*, Changhee Park(park6610@ssu.ac.kr)**

요약

본 연구는 유년층에게 나타나는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부모 및 교사의 중재 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유년층의 경우, 향후의 미디어 교육 방향에 있어 요인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다. 연구결과,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지각리터러시'와 '비판리터러시'와 같은 유형의 리터러시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각리터러시에 대한 영향력으로 성별, 학년, 이용시간, 부모 맞벌이, 부모의 적극적 중재, 소극적 중재 그리고 교사의 적극적 중재, 소극적 중재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판리터러시의 경우 이용시간, 부모 맞벌이 그리고 부모의 적극적·소극적 중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리터러시와 비교하여 성별과 학년 그리고 교사의 중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년층의 경우 학교에서의 교사 영향력보다는 가정에서의 부모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정책적으로도 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유년층 | 스마트 미디어 | 리터러시 | 부모중재 | 교사중재 |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t patterns of childhood's smart media literacy and to predict factors relating to smart media literacy behaviors. Also,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parents' and teachers' mediation of childhood's smart media literac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00 elementary students in Korea and we presented two patterns of smart media literacy : perception literacy, critical literacy. The result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perception literacy and parental active and passive mediation. And a teacher's active and passive medi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perception literac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arental active and passive mediation also affected the critical literac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like in gender, school year, spending time, a double income family on smart media literacy. This suggests that a parent's active and passive mediation may lead to activate children's smart media use.

■ keyword : | Smart Media | Literacy | Parent's Mediation | Teacher's Mediation | Childhood |

I. 서론

스마트 미디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확산과 일상화는 미디어가 정보의 습득과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기능을 넘어 가치 및 태도, 무의식 및 습관적 행위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 교육은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활용방안들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의 속성과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한 비판적이고 선택적인 정보의 수집, 처리 및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는 개념이다.

미디어 활용 능력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자기표현, 미디어 및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등에 대한 연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에 비해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기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디어 교육에 노출될 여지가 많은 유년층과 청소년층의 경우 미디어 활용 능력에서는 성인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나은 반면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성인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과독스를 보여주고 있다[1]. 이는 미디어 사용능력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객관화의 가치적 판단 가능성이 서로 상충하는 능력이 아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인, 청소년과 유년층에 대한 차별화된 미디어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와 논의 또한 중·고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5]. 하지만 유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도 스마트 미디어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모의 교육정보 커뮤니티인 ‘맘앤티톡’ 설문조사[6]에서 초등학교 62%가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7]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스마트 미디어 보유율이 97.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비롯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이용이 상당히 낮은 연령대에

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물론 게임과 같은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이 유년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 대한 당위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인지적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연령대인 유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의 유형과 부모와 교사의 중재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10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그 이상의 연령대에 대한 교육과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학과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미디어 선택과 활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수용자 연구의 성과를 유년층에게까지 확장시키지 못한 채 이들이 가정 혹은 학교에서 단편적인 미디어 교육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들이 확장되는 생활세계 내에서 자신과 적합한 사회화와 정체성 형성의 방향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8][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을 파악하여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교육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는 19세기까지의 문자언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20세기 영상언어의 등장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문자언어를 중심으로 한 시대의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텔레비전과 영화의 대중화는 문자해독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온 리터러시의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10]. 이러한 변화는 문자라는 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기호의 지배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영상언어는 문자와는 달리 시대적 혹은 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현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석적 가변성이나 표현

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문자에 비해서 확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상언어는 문자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상(representing)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문자와는 달리 영상언어가 사실의 재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하며 따라서 영상을 통한 폭력적, 선정적인 현실의 재현은 문자에 비해서 유년층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역기능이 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영상언어의 역기능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보호주의적 관점을 띄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보호주의적 관점 안에서 논의된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심 개념은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적 시청능력'이었으며,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 또한 영상매체가 가지는 현실의 모사성, 재현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모방과 관련되었다. 학술적인 논의 또한 영상매체가 전달하는 폭력성과 선정성 등에 초점이 두어졌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미디어 이용에 대한 타율적인 제한과 관련된 관점이 압도적인 경향을 보였다 [10][11].

그러나, 타율적 규제와 관련된 보호주의적 관점은 능동적 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함께 개인의 자율적 규제 능력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능동적 수용자론에 입각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경우 '비판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 및 배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스마트 미디어의 기반인 모바일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전까지는 수용자 중심의 역할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 및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었다 [12-14]. 즉, 개인화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생산과 확산 가능성의 극대화는 단순히 미디어를 읽고 수용하는 것 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보 확보 및 사회적 참여의 수준이 달라

짐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능동적 이용자라는 관점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이용자 간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미디어 사용 방법과 기술의 습득 및 내재화에 그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논의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미디어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평가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5] 국내의 여러 연구들도 유사한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16][17]. 또한, 안정임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의 기회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건전한 시민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8]. 즉,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 기회와 근본적인 지식 습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Gilster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단편적인 컴퓨터 미디어 사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의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인 사고력을 의미하며, 여러 정보를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내는 올바른 사용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2].

그러나 여러 가지의 경향의 미디어 리터러시 논의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수용자의 확장성에 대한 부재일 것이다. 현재 SNS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일상적인 삶의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영향, 그리고 미디어의 사용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미디어와 관련된 적절한 행위패턴(behavioral patterns)에 대한 논의를 너무 늦게 시작함으로써 문제로 파악되는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날 때 새로운 미디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경제적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뿐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이 어떠한 형태의 행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향성과 관련된 논의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의 경우 미디어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미디어의 사용과 관련된 행위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내

제화하게 된다. 이는 미디어 사용이 기술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포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내재화된 미디어의 사용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적 접근 보다는 미디어가 가지는 경향성의 예측과 유년층의 미디어 사용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행위 패턴에 대한 숙고와 논의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제기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를 크게 활용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연구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용자의 확장 한계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교육의 실질적 효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형태와 함께 리터러시 유형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능동적 수용자의 관점과 수용자의 확장성에 대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유년층으로의 미디어 리터러시 확장의 시도는 향후에 이루어질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리터러시

유년층이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에 노출되는데 따른 장·단점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향성을 보고하고 있다.

Plowman et al.의 연구에서 유년기는 놀이와 가정과 또래집단을 통한 사회화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테크놀로지가 아이들이 사회적·감성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9]. 하지만 유년층과 테크놀로지의 연계가 태어날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즉, 4~5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보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다.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는 개념의 사용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20]. Prensky는 테크놀로지와 함께 성장하고,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로 규정하는 한편,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로 정의하였다[20]. 또한, Plowman et al.의 연구는 많은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웹 사이트나 게임을 접했을 때 당혹스러워하며, 컴퓨터나 노트북과 같이 성인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개발된 기기들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디지털 기기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관행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1]. 이는 아이들의 미디어 수용과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을 인도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의 가정환경은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로 채워져 있고, 가정에서의 활동 가운데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은 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디어를 단지 소비하고 있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는 점이다[22]. 즉,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와 플랫폼 사용은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자를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는 동시에, 사회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사회화 과정을 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학습의 연장인 것이다. 이러한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은 테크놀로지가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년층 미디어 교육의 주체가 교육현장과 가정 모두가 되어야 하며 이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유년층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이용은 부모나 교사의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더욱 섬세하고 복잡하며 비판적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23]. 즉, 스마

트 미디어의 유년층 경험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미디어 교육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지금까지의 유년층 미디어 교육의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년층의 생활에서 스마트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유년층 생활 구성요소로서 스마트 미디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기존 연구는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와 리터러시 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용 행태와 리터러시 유형 파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3. 부모 및 교사 중재와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성장기에 있는 유년층에게 신체적 성장과 함께 심리·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가정과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교사는 자녀와 학생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모 및 교사 중재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자녀와 학생의 스마트 미디어 이해와 이용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3.1 부모 중재

미디어와 관련된 부모의 중재는 전통적으로 TV시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부모의 TV시청 행태와 함께 자녀의 TV시청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중재 유형과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24-27]. 기존 연구에서는 자녀의 TV시청과 관련한 부모의 중재 유형과 효과의 분류를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공동 시청(Co-viewing), 적극적/설명적 중재(Active/Instructive mediation) 등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모 중재 유형과 효과는 행태적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에 대한 연구에도 이와 같은 행태적 연구 경향성은 이어지고 있다. Livingstone과 Helsper는 적극적 공동 이용(Active

Co-use), 기술적 제한(Technical Restrictions), 상호작용 제한(Interaction Restrictions), 감시(Monitoring)의 4가지의 부모 중재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정입은 인터넷 이용, 정보의 분별과 평가, 활용방식 등의 분야에서 14개의 중재방식을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대화형, 제한형, 동행형, 감시형으로 나누고 있다[28][29].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 이후 부모 중재의 개념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 행위 중심에서 중독과 관련한 인지·심리적 관점으로 연구되어졌다. 인터넷과 관련한 부모 중재는 기존 미디어에서의 요인보다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숙정 외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부모 중재 유형을 ‘적극적 중재’, ‘공동적 사용’, ‘기술적 중재’, ‘소극적 중재’ 등의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즉,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알려주는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진 자녀는 인터넷 이용의 조절 실패 확률이 낮으며, 시간제한 및 금지와 같은 소극적 중재는 조절 실패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30].

휴대폰 및 게임과 같은 미디어 이용에도 부모의 중재 효과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소혜 외는 자녀의 게임 이용에 있어서 부모 중재 유형을 통제적 중재, 적극적 중재, 공동이용중재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부모의 중재 유형 중 통제적 중재만이 효과가 있었으며 게임에 관한 한 부모의 중재보다는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31].

유년층에서 스마트 미디어의 의존적 성향에 대한 요인은 심리적 요인 외에도 부모의 중재유형이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모의 중재와 같은 가족 환경은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불안, 자기통제력, 기본적인 욕구 불충족 등의 심리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는 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3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는 중재 효과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녀가 스마트 미디어 등을 통하여 심리적 만족과 정서적 지지를 과도하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취할 것인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33].

이에 본 연구는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부모의 중재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청소년층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현상에 관심을 두고 연구되어져 왔으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연령이 낮아지고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년층에 대한 부모 중재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 미디어 이용 초기에 스마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3.2 교사 중재

기존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및 휴대폰 리터러시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 중재와의 관계 분석이 주요 관심사로 여겨졌다. 가정 환경에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분석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접근은 부모의 미디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부모 중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더 나아가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정책적 마련 등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는 순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연구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연구는 휴대폰 리터러시를 위한 사회 윤리교과 또는 교양과정을 통하여 휴대폰 사용방법 및 중독예방법 등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교육 공간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하여 주문하고 있다[34]. 구현영 외는 청소년의 휴대폰 리터러시 향상 교육에 대한 효과적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임을 강조하며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의 강압적 금지 보다는 사용예절과 올바른 활용법 등의 교육과 계몽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35]. 이것 또한 교사 중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이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황용석 외는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연구에서 교사 중재의 요인 분석을 통해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휴대폰 중독 고위험 집단이

교사의 통제에 더 높은 수준으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적극적인 교사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36].

지금까지 논의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관한 국내 연구의 빈곤을 보완하기 위해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행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모와 교사의 중재 영향력을 연결시켜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이용의 이해와 교육적 적절성 등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III.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의 유형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중재 역할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중재 역할은 무엇인가?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 자녀 및 학생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및 이해에 있어서 부모 및 교사 중재에 관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총 4주간 전국의 10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200명, 3학년 200명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학교당 40명의 학생이 포함되었다.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성별과 학년을 고려한 표집을 하였다. 더욱이 설문조사 실시 시 유년층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각 학교 교사의 협조로 유년층과 면접원의 비율을 5:1로 조정하여 면접설문을 실

시하였다. 설문 결과 불성실 응답 설문 2부를 제외한 398부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54% (215명), 여학생 46% (183명)로 나타났다.

우선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10개의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차원의 리터러시 변인이 연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중재와 교사의 중재를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그 설명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변인의 측정

2.1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인터넷 리터러시 척도에 사용된 구성개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인식 정도에 맞게 응용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37][38]. 유년층들은 각 문항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답변하였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한 유년층의 리터러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김은미 연구의 인터넷 리터러시 척도를 참조하여 유년층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의 변인을 고려한 10개의 설문 항목을 작성하였다. 기존의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방법[8][39-41]의 경우 표준화된 측정법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유년층에 적합한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10개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주성분 분석, 배리맥스방식)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어졌으며 이를 각각 ‘지각리터러시(perception literacy)’와 ‘비판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로 설명하였다. 이 두 차원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지각리터러시는 .88, 비판리터러시는 .8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과 리터러시 유형에 대한 요인분석은 연구 결과에서 언급하였다.

2.2 부모와 교사의 스마트 미디어 중재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부모 및 교사

의 중재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 리터러시와 부모 중재 연구[28][29]에서 사용한 측정 방법을 참고하여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적절하게 재구성하였다. 즉,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임을 고려하여 기존의 중재 유형 중 ‘적극적 중재’와 ‘소극적 중재’로만 측정하였다. 기존 미디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 이용’ 유형은 스마트 미디어의 이용 특성상 관련성이 지극히 낮을 수 밖에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유년층은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답변하였다.

표 1. 부모 및 교사의 중재 유형

설문 문항 및 구분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s α
부모 중재	스마트 미디어의 좋고 나쁨을 말해주신다.	3.62	0.89	.83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말해 주신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문자사용에 대해 말해주신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학습방법에 대해 말해주신다.			
	스마트 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스마트 미디어 게임을 못하게 한다.			
소극적 중재	스마트 미디어를 빼앗긴 적 있다.	3.39	0.77	.76
	스마트 미디어 과다사용으로 혼란적이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좋고 나쁨을 말해주신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말해 주신다.			
교사 중재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문자사용에 대해 말해주신다.	2.65	0.92	.79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학습방법에 대해 말해주신다.			
	스마트 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스마트 미디어 게임을 못하게 한다.			
	스마트 미디어를 빼앗긴 적 있다.			
	스마트 미디어 과다사용으로 혼란적이 있다.			
소극적 중재	스마트 미디어를 빼앗긴 적 있다.	3.08	1.16	.81
	스마트 미디어 과다사용으로 혼란적이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좋고 나쁨을 말해주신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말씀해주신다.			

부모의 중재 유형 중 적극적 중재는 ‘부모님은 스마트 미디어의 좋고 나쁨을 말해주신다’, ‘부모님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 방문에 대해 말씀해주신다’, ‘부모님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문자사용에 대해 말씀해주신다’, ‘부모님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학습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s α = .83).

그리고 소극적 중재는 ‘부모님은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 ‘부모님은 스마트미디어 게임을 못하게 한다’, ‘부모님에게 스마트미디어를 빼앗긴 적이 있다’, ‘부모님에게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으로 혼난 적이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교사의 중재 유형도 동일하게 적극적 중재와 소극적 중재로 구분되어 측정되었으며 문항 유형도 부모의 중재 유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적극적 중재 .79, 소극적 중재 .81로 조사되었다.

V. 연구 결과

1.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의 유형

유년층 학생들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10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의 유형은 ‘지각리터러시’와 ‘비판리터러시’ 등 2가지로 구분되었다.

표 2.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

설문문항	Mean (SD)	유형	
		지각리터러시	비판리터러시
나는 스마트폰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36 (1.02)	.82	.21
나는 스마트폰이 어디서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9 (1.11)	.77	.15
나는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41 (1.06)	.80	.17
나는 스마트폰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3.31 (0.98)	.81	.19
나는 스마트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3.75 (1.18)	.79	.22
나는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8 (1.03)	.34	.84
나는 스마트폰의 내용이 돈을 벌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3.12 (1.21)	.25	.79
나는 스마트폰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3.39 (1.01)	.32	.82
나는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3.09 (1.15)	.21	.81
나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한다.	3.59 (1.13)	.36	.78
특성값(Eigen Value)		5.23	6.02
설명변량(%)		32.82	34.38
총변량(%)		32.82	67.20

이는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의 유형이 인식적 관점의 긍정적 지각과 비판적 이해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존 연구의 측정방법 중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이용과 그에 따른 콘텐츠 생산 등의 행태적 관점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리터러시는 ‘스마트폰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이 어디서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유형으로 지각리터러시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활용능력의 행태적 정도를 측정하는 활용리터러시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비판리터러시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분석적 시각과 함께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비판적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비판리터러시는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의 내용이 돈을 벌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유년층의 설문결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으로 지각리터러시(M=3.46, SD=1.07, α =.82), 비판리터러시(M=3.23, SD=1.11, α =.80)로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별 설명변량은 지각리터러시는 전체 변량의 32.82%, 비판리터러시는 전체 변량의 34.38%로 나타났다. 즉,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2가지 유형의 전체변량은 67.20%를 차지하고 있다.

2. 부모 및 교사 중재 유형과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와의 관계

부모 및 교사의 중재 유형이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부모 및 교사의 중재가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 이

용시간과 부모 맞벌이를 통제하고 부모 및 교사의 적극적 중재와 소극적 중재를 독립변인으로 삼았다.

표 3. 부모 및 교사 중재 유형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지각리터러시		비판리터러시	
		β	t	β	t
일반적 사항	상수	.12	.41	.02	.13
	성별 (여)	.32	8.21**	-.02	-.98
	학년	.13	2.94**	.05	.91
	이용 시간	.18	6.32*	.11	2.55**
	부모 맞벌이	-.16	-3.39**	-.10	-2.34**
부모 중재	적극적 중재	.26	6.79***	.31	7.92**
	소극적 중재	.25	2.86*	.14	2.02*
교사 중재	적극적 중재	.12	2.83**	.03	.66
	소극적 중재	.19	2.54*	.02	.52
Adj R ²		.329		.215	
F		35.73***		22.59**	

*p<.05, **p<.01, ***p<.001

분석 결과,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 중 지각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32.9%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성별, 학년, 이용시간은 지각리터러시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부모 맞벌이는 부적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유년층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높은 학생이 그리고 이용시간이 많은 학생이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유년층 또래에서의 인지 발달 정도와 성숙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며 학년이 높고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기능적·인식적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부모 맞벌이의 유무도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학생들은 지각리터러시와 관련한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 및 교사의 중재 유형과 지각리터러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소극적 중

재, 모두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교사의 적극적 중재와 소극적 중재도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부모와 교사의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적극적 중재와 소극적 중재 모두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인식 정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 교육 주체로써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유년층이 스마트 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모와 교사의 미디어 교육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부모 및 교사의 중재 유형이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비판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21.5%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지각리터러시를 분석한 회귀모델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유년층에게는 비판 및 분석적 시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바라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통제변인 중 이용시간과 부모 맞벌이만 비판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유년층에서도 비판 및 분석적 태도를 지니며 스마트 미디어를 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유년층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용시간으로 인한 부정적 행동 패턴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또래 집단보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식 습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부모 맞벌이의 경우는 부적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부모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은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모 및 교사의 중재 유형에서는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소극적 중재, 모두가 정적인 관계로 분석되어 부모의 자녀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관여하는 태도가 스마트 미디어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극적 중재인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소극적 중재인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 제한이나 훈계에 의한 통제 등 어떠한 형태의 중재를 가지고 있던 유년층에게 비판리터러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생각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

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앞으로 유년층이 성장하면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교사의 중재 유형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년층의 경우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함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과 보급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고 그 가치의 전파성이 한 사회 뿐 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로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스마트 미디어의 행태적·심리적 의존도도 함께 높아지면서 각 연령대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 전 세대보다 더욱 많은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되는 유년층의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는 향후 중독 예방과 함께 올바른 사용법 습득이라는 면에서 교육적 접근이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년층에게 나타나는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을 먼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중재 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예측적 변인을 밝혀내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지각리터러시’와 ‘비판리터러시’와 같은 유형의 리터러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각리터러시는 보통의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 미디어의 기능에 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년층은 스마트 미디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더불어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측정한 비판리터러시 또한 유년층이 습득하고 있는 지식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유년층의 경우 스마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인다. 즉, 지금까지 긍정/부정의 이분법적인 스마트 미디어 인식구분에 변화가 필요함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유년층의 경우 스마트 미디어가 일상생활의 구성요소로써 자리 잡고 있는 세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경험을 명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및 교사의 중재 유형인 적극적 중재와 소극적 중재가 미치는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지각리터러시에 대한 영향력으로 성별, 학년, 이용시간, 부모 맞벌이, 부모의 적극적 중재, 소극적 중재 그리고 교사의 적극적 중재, 소극적 중재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맞벌이는 지각리터러시에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부모 및 교사의 적극적·소극적 중재가 지각리터러시를 형성하는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판리터러시의 경우 이용시간, 부모 맞벌이 그리고 부모의 적극적·소극적 중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리터러시와 비교하여 성별의 영향력은 없었으며 교사의 중재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 맞벌이의 경우는 비판리터러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중재는 더욱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의 역할이 유년층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대변하는 결과라고 보이며 가정에서의 올바른 미디어 교육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숙고하여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유년층의 경우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교육 강화가 향후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지식 형성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변인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 가정에서

의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Buckingham은 부모의 계층 및 소득 등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2].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술적 요소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술과 사회적 관습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의 합이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 맞벌이와 부모의 적극적·소극적 중재가 유년층의 지각 및 비판리터러시 형성에 설명력을 갖는 요인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는 유년층의 경우 학교에서의 교사의 영향력보다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정책적으로도 이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유년층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는 향후 청소년기와 성인으로 성장하기는 시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연령대이며 유년층 시기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후의 스마트 미디어 인식 구조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유년층 부모를 상대로 한 스마트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미디어 교육의 선제적 대응은 학생보다는 부모에 대한 교육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의 연구는 유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더불어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한 실증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의 다양한 변인이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설명력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더욱 더 정확한 유년층 미디어 리터러시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정책적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을 유치원생들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스마트 미디어의 사용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유치원생들의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의 당위성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뿐 아니라 인터뷰나 참여관찰법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에서 소홀히 하였던 유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유형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음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문헌

- [1] 박주연, 김희화,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관계 : 부모 훈육방식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호, pp.25-45, 2013.
- [2] A. Bianchi and J. Phillips,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8, No.2, pp.39-51, 2005.
- [3] J. Katz, *Connections: Social and Cultural study of the telephone in American lif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9.
- [4] 강석기, 한상훈, “청소년의 과잉행동과 대인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전·충남지역 대학생 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1호, pp.111-128, 2005.
- [5] 이정기, “청소년의 성장적 휴대폰 이용동기와 중독, 언어폭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2호, pp.365-401, 2011.
- [6] 이데일리, “초등학생 62% 스마트폰 사용 중,” 2015, 7. 21일자, 2015.
- [7]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2012.
- [8] D. Buckingham, *The media literacy of child and young people*, Ofcom, 2005.
- [9] A. I. Nathanson, “Parent and Child Perspectives on the Presence and Meaning of Parental Television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5, No.2, pp.210-220, 2001.
- [10]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디어 리터러시 국내외 동향 및 정책방향,” 코카포커스, 제67권, 제1호, pp.2-27, 2013.
- [11] 원용진, 김양은, 양철진, 조준형,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언론재단, 2013.
- [12] P. Gilster, *Digital literacy*, New York, NY: Wiley, 1997.
- [13] 유명만, “eLearning과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 시대의 새로운 학습능력,” 산업교육연구, 제8권, 제2호, pp.83-117, 2001.
- [14] 정현선,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2004.
- [15] EAVI(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EAVI Final Report, 2011.
- [16] 권성호, 서윤경, *교육공학적 관점에 따른 미디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울, 2005.
- [17] 안정임, 김양은, 박상호, 임성원, *미디어 교육 효과측정 모델: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 한국언론재단, 2009.
- [18] 안정임,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제7권, 제1호, pp.1-21, 2013.
- [19] L. Plowman, J. McPake, and C. Stephen, “Young children and technology in the home,” *Children and Society*, Vol.24, No.1, pp.63-74, 2010.
- [20] M.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Vol.9, No.5, pp.1-5, 2001.
- [21] L. Plowman and J. McPake, “Seven myths about young children and technology,” *Childhood Education*, Vol.89, No.1, pp.27-33, 2013.
- [22] A. L. Gutnick, M. Robb, L. Takeuchi, and J. Kotler, *Always connected: The new digital media habits of young children*, NY: The Joan Ganz Con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2010.
- [23] 황슬하, 강진숙, “어린이의 스마트폰 이용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0권, 제2호, pp.111-134, 2014.
- [24] 안정임, “한국에서의 TV시청 중재 유형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6호, pp.332-397, 2003.
- [25] A. I. Nathanson, “Parent and child perspectives on the presence and meaning of parental television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5, No.2, pp.201-220, 2001.
- [26] P. M. Valkenburg, M. Krcmar, A. L. Peeters, and N. M. Marseille,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3, No.1, pp.52-66, 1999.
- [27] R. Warren,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5, No.4, pp.847-863, 2005.
- [28] S. Livingstone and E. J. Helsper,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2, No.4, pp.581-599, 2008.
- [29] 안정임, “인터넷 이용 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6호, pp.230-266, 2008.
- [30] 이숙정, 전소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 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pp.289-322, 2010.
- [31] 임소혜, 조연하,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제4호, pp.173-218, 2011.
- [32] 이충효, 초·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33] 김정현, 정인경,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7권, 제1호, pp.111-127, 2015.
- [3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휴대전화 중독원인분석*, 2006.
- [35] 구현영, 박현숙,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56-65, 2010.
- [36] 황용선, 박남수,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 요인과 중독 예방에 있어서 부모·교사의 역할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5호, pp.309-348, 2011.
- [37] S. Livingstone and E. Helsper, “Balancing

opportunities and risks in teenagers' use of the Internet: the role of online skills and internet self-efficacy," *New Media & Society*, Vol.12, No.2, pp.309-329, 2010.

[38] 김은미, "부모와 자녀의 인터넷 리터러시의 관계 -인터넷 리터러시는 대물림되는가?,"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2호, pp.155-177, 2011.

[39] M. Ito, H. A. Horst, M. Bittanti, B. Herr-Stephenson, P. G. Lange, and C. J. Pascoe, *Living and learning with new media: Summary of findings from the Digital Youth Project*, The MIT Press, 2009.

[40] 김병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208-217, 2013.

[41] 서보경, "성인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 이용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305-317, 2014.

[42] D. Buckingham, "The Electronic Generation? Children and New Media," In L. Lievrouw & S. Livingstone (Eds.), *The Handbook of New Media*, London: Sage, 2002.

박 창 희(Changhee Park)

정회원



- 1985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95년 12월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언론학(박사)
- 현재 :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방송, 문화, 수용자

저 자 소 개

장 석 준(Seckjun Jang)

정회원



- 1995년 2월 : 숭실대학교 불어불문학과(학사)
- 1997년 8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10년 8월 : 미국 텍사스대학교 언론학(박사)

▪ 현재 :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뉴미디어, 소셜미디어, 정치커뮤니케이션